

[종합·국제]

취임 3주년 맞는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맞춤형 교육’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



“원심유장(源深流長)”. 근본이 깊고 튼튼해야 유장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임기동안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25일 취임 3년을 맞는 김장환 전남도교육청 교육감은 ‘실력 전남 구현’의 토대를 다지고, ‘전남형’ 교육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에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23일 “15년전인1990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한 학생수, 400여개 가까운 학교가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운 여건에서 전남교육은 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했다”고 취임 3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외국어 프로그램’ 타시도 벤치마킹

김 교육감은 변화되는 교육환경과 열악한 전남교육 여건에서 농어촌의 특성을 살린 시책으로 경쟁력과 지역 교육의 활로를 찾았다.

조선 당선(2001년) 뒤 다음해에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道) 단위 학력진단고사는 학생들의 객관적인 학업 성취 수준에 맞춰 기초·기본 학력 책임제, 방학중 맞춤형 교육 등 맞춤형 교육으로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전남 외국어교육프로그램’도 타 시·도교육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눈길을 끌었으며 지난 2005년부터

본격 추진된 ‘외국어체험센터’는 도내 21곳에 설치됐고 원어민·전담교사와 함께 외국어 학습의 효과적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학생 채우기에 급급했던 전문계 고교도 올해 모두 정원을 넘겼으며 일부 특성화 고교는 지원률이 2대1을 훌쩍 넘는 등 직업교육의 성장세로 꼽힌다.

또 2005년부터 역점프로 추진해온 ‘좋은 책 60권 읽기 운동’은 전남교육의 가장 독창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인프라 구축·교사 전문성 제고 역점

김 교육감은 최적 학습환경을 위해 물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외국어 교사 연수, 온라인교육연구회 등 교사 전문성 제고 등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다.

하지만 6학급의 소규모 학교가 절반 가까이(44%) 차지하고 매년 수천명씩 줄어드는 학생수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반발이 적지 않은 학교 통폐합, 우수교사 확보, 열악한 교육재정 확충 등은 김 교육감이 풀어야 할 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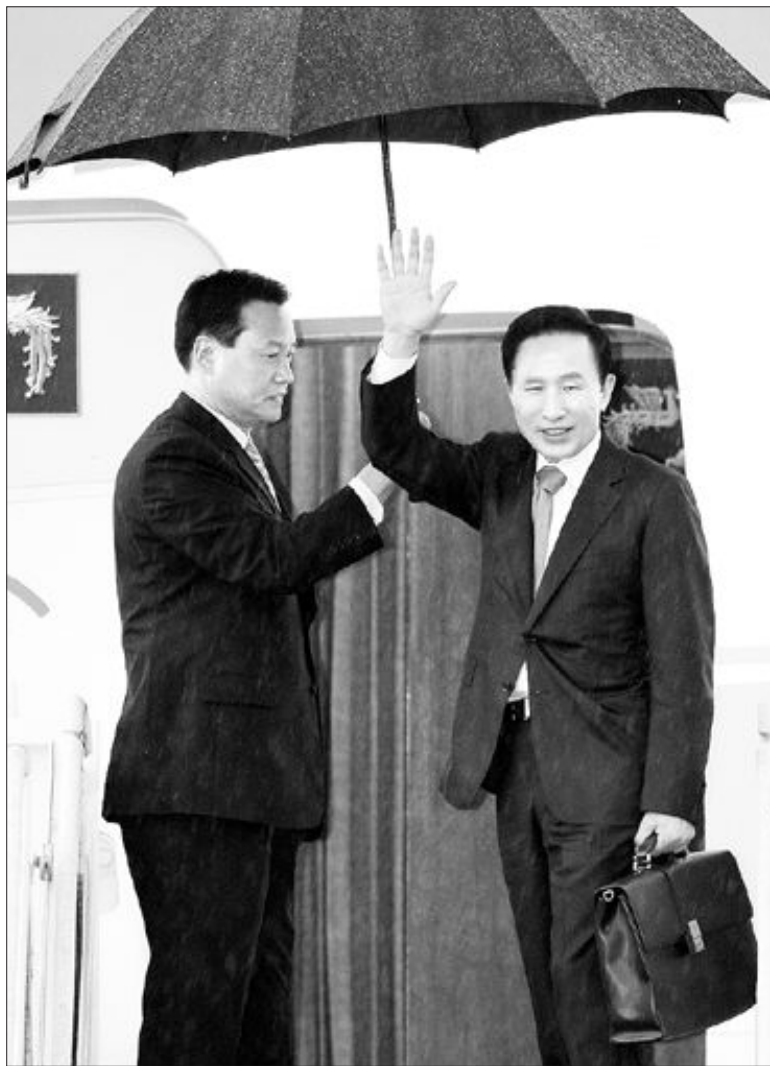
2001년에 이어 2005년 재선된 김 교육감은 광주사범대 수학과와 조선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도교육청 장학관, 전남외국어교 교장, 전남교육연구위원,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등을 역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금융위기 극복 공조 다지고 북핵 논의

■李 대통령 아셈정상회의 어떤 성과 거들까

日·佛·폴란드 등 5국과 양자회담 주목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관에서 ‘제7차 아셈(ASEM)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며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24~2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는 ‘제7차 아셈(ASEM, Asia-Europe Meeting) 정상회의’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일본 도야코 G8(선진 8개국) 확대정상회의에 이은 두 번째 다자외교 무대인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경제와 북핵, 일본 등 5개국과의 양자 회담로 집약된다.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와 선진국 위주의 국제금융체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대북문제와 관련한 신북핵의 조기폐기와 함께 새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아셈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 낸다는 구상이다.

특히 일본과 프랑스, 덴마크, 폴란드, 베트남 정상과의 양자회담에서는 양국간 관계증진 방안을 집중 논의, 각국과의 관계를 정상화 내지 격상시킨다는 복안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회의는 국제지도자로서 의 면모를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다방면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한 뒤 이튿날부터 개막식 참석을 시작으로 4차례의 정상회의와 환영 만찬, 정상 업무오찬, 폐막식 등의 공식일정을 차례로 소화한다.

24일 오후 시작되는 1차 정상회의 산도발언을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역설 하면서 선진국 위주의 현행 국제금융

체제에 한국 등 신흥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적극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제기구 개편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 필요성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그간 새 국제기구 창설 필요성을 수차례 역설해 왔다.

이 대통령은 25일 정상 업무오찬에서는 상상공영을 원칙으로 하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소개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아셈 회원국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정상회의 기간 열리는 5개국과의 양자정상회담도 결코 의미가 적지 않다. 일본, 베트남, 덴마크, 폴란드 정상과의 양자회담은 25일, 프랑스 정상과의 양자회담은 24일 각각 열린다.

이 대통령 취임 후 4번째인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7월 일본의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영유권 명기 강행으로 한일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은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의 첫 대면이어서 독도나 역사 문제 등 민감한 이슈보다는 세계적 금융위기 대책과 북핵 6자회담 공조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과 함께 한·유럽연합간 FTA 체결 문제가 집중 협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북핵 진전시 10·4선언 사업 우선 추진”

金통일 국감서 밝혀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3일 영변 핵시설 불능화의 마무리 등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10·4선언에 포함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핵시설 불능화 조치가 완료되고 북핵 상황이 더욱 진전되면 정부는 남북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비핵·개방 3000 계획을 이미 포함돼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10·4선언에도 포함돼 있는 사업들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2일 미국이 대북 테러지원금 지정을 해제했음을 언급한 뒤 “불능화가 예정대로 완료돼 건다면 그 과정에서 남북간 사업을 적극 검토 추진할 것이며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등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장관은 남북관계의 전면 차단 가능성을 언급한 16일자 노동신문 논평의 글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에 대하여 압박을 가함으로써 우리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라며 “북한도 남북관계 중단이 미칠 역효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

총알보다 빠른 차 나온다

시속 1,600km...英 정부 내년까지 개발

최고 시속이 1천600km(1천마일)에 달하는 ‘총알 보다 빠른’ 자동차가 앞으로 1년 안에 나온다 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3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1년6개월 전부터 1천200만 파운드(약 274억원)를 투입해 극비리에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1년 안에 ‘블러드하운드 SSC(Bloodhound SSC)’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청동색과 주황색 줄무늬가 들

中, 경기부양 위해 30조원 감세

내년 1월부터 시행

중국인민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1월부터 30조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중국 신시보(信息時報)는 중국 국무원이 재정부가 제출한 감세안을 최근 승인했다면서 감세 규모는 1천 500억위안(30조원)에서 최대 2천억 위안(40조원)으로 전망되며 이 조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해관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수출기업 보호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전체 품목 가운데 4분의 1 이상의 제품에 대한 관세환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관세환급이 제고되는 품목은 3천 486개에 이르는 광범위한 규모로 해관 이두는 품목의 25.8%에 이른다.

중국인민정부는 조치는 경제성장의 3대 요인인 투자와 소비, 수출 중에서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경기침체를 완화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도가 담겼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에서는 재정수입 증가세가 최근 눈에 띄게 둔화되는 등 경기침체를 나타내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Includes contact info: 062)222-8446, H.010-3666-8446. Lists various properties with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

Advertisement for Ielaysia restaurant. Features a menu with prices, a photo of a chef, and contact info: 062)671-1199. Promotes premium buffet and various dining options.